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사사기 10:17-18, 11:1-11]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7 그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2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3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4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6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7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8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10장 끝: 죄의 막다른 골목;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 자녀들의 비참함을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 설교본문에선 암몬이 저지되는 장면이 설정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어디에 있나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실 건가요? 기르앗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값을 주고 사오려 하지만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나요? 진정한 리더십은 막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 스스로의 안전, 목표, 계획을 기꺼이 제쳐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따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그 지역 창녀가 낳은 아버지의 사생아; 입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과 백성에게서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무가치한 무리를 이끄는 무법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의 오랜 억압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로 이 사람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위해 싸우는 데 익숙한 자, 빈틈없는 리더십 기술을 연마해온 사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자, 자신을 따른 자들에게 충성과 존경을 강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자기 가족의 가장 막내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회의 찌꺼기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세주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셨으며 그 분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을 포함한 모압 출신의 릿,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아들 솔로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참고: 이사야 53) **그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음의 혼란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불완전함속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가져오십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편견에 굴복하지 않으시며 그분께서는 사회적, 부모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입다처럼 우리 중 일부는 인생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요소들을 함께 엮어 주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그분께서 이루실 선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여,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했던 바로 그 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도한 모든 노력들은 실패로 돌아갈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완전한 실패 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멸시하고 배척하던 바로 그 분께, 우리가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분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이십니다!